

경남, 지역경제 활성화 고삐... 투자기업 최대 200억 특별지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30일부터 시행
부지확보 애로·투자 불균형 해소
관광·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신설

경남도는 과격적 기업유치 인센티브 개편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경남도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정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정부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조속한 지역 정착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맞춘 지원업종 확대, 도내 고른 투자유치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경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홍보 이미지.

인센티브 개편 주요 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최대 10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증액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100억 원 확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구' 추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 ▲이중 지원 금지예외 조항 마련 등이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은 기존 설비투자에만 100억 원을 지원했으나 부지매입비까지 확대하면서 최대 지원을 200억 원으로 늘렸다.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은 투자진흥기금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지원조건으로 기존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기업투자촉진구에 대한 지원도 최대 14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구'

를 추가했다.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보조금도 신설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보조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경남도의 이번 조례 개정은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 시행을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경남도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에서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주요 앵커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올해도 역대 최대 유치실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주차장 사유지 공유 개방사업

울산시는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3년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 예산 규모는 3억 7000만 원이며, 우선 순위 평가와 최종 지원, 선정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유지 개방사업'은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지역주민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이도식 기자

구미시 청렴·자체감사 2년 연속 '우수'

구미시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시(市) 단위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경북도가 매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다.

자체감사활동(50%), 반부패 청렴활동(50%) 등 2개 분야 19개 지표의 실적을 심사한다.

구미시는 지난해 33개 기관·부서 대상 자체감사를 실시해 2억 2400만원의 회수조치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미(경북)=김상복 기자

광주, '특별지자체' 본격화 미래 호남권 발전 전망도

행안부, 맞춤형 컨설팅 사업 선정
지방소멸 대응 등 광역사무 기대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지자체 간 협력제이다.

광주시는 4월부터 진행되는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사무와 권한 발굴, 기관 구성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머리를 맞출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역행정 수요에 탄력적

으로 대응,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통·SOC, 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광주·전남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을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계한 초광역 투자협약 사업으로 추진, 미래 호남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7월 광주 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합의한 바 있다.

광주시는 초광역협력 사무 발굴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와 올해 1월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월부터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도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 활동.

전남도 농·공산품 '201만달러' 수출계약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전남도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지난 24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201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이끈 시장개척단에는 도내 농수산물 기업 9개사와 케이(K)-뷰티 등 공산품 기업 6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중소기업 15개 사는 119개 현지 수입상과 1대1 상담을 통해 3829만 달러 수출 상담과 201만 달러

수출계약을 했다.

김 전문 기업(㈜해농은 싱가포르에서 30만 달러, 말레이시아에서 50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말레이시아 수출 상담회에선 광어족, 전복죽 생산기업(㈜해성인터내셔널)이 100만 달러, 발전설비용 신축이음관 제조기업(㈜디엠티)이 10만 달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봉강친환경이 8만 달러, 리사이클링 조미김과 미역을 생산하는 해산이 3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대구,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 통합' 확대

오는 7월부터 전국 최초 시행

대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의 교통복지 확대한 '어르신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한다.

대구는 대구시의회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4일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무임승차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교통 지원사업은 이번에 대구시가 전국 최초다.

/대구=김상복 기자

이 사업은 흥준표 대구시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실시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구지역은 도시철도(3개 노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8%)보다 시내버스(119개 노선, 수송 분담률 18%)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어르신 무임승차 혜택은 도시철도만 가능해 사실상 도시철도 1~3호선 주변에 거주하는 일부 어르신만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은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북도 '2023 SNS 서포터즈' 발대식

문화·관광 등 뉴미디어 홍보

경북도가 24일 '2023년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경북 SNS 서포터즈는 2014년 시작해 올해 10년째다.

이들은 정책, 문화·관광, 재난안전 등 주요 도정 현장과 행사를 도민의 시각으로 취재해 뉴미디어로 홍보한다.

지난 10년간 이들의 활약으로 경북 공식블로그에 취재 기사 콘텐츠 약 3200건이 게시됐으며, 누적 조회수는 총 950만 회를 기록해 효과가 입증됐다.

올해 SNS 서포터즈는 여행 인플루

언서, 작가, 유튜버, 귀농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452명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6.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북도는 이 가운데 사진과 글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반 서포터즈 50명을 선발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등 영상 서포터즈 20명도 함께 운영한다. SNS 서포터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경북 23개 시군 전역을 누비며 관광 및 지역 명소, 정책 현장 등을 취재한다.

경북도는 이들에게 취재 및 콘텐츠 제작에 따른 원고료를 지원하고 1년간 가장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에게는 도지사 표창 등 특별 포상을 할 예정이다.

/안동(경북)=김상복 ksb8100@

영덕군 '세종사무소 개소' 국비 확보

영덕군이 정부 부처들이 모여 있는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영덕군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고 지난 23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영덕군은 재정자립도 향상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지원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상정하고 김광열 영덕군수의 주도 아래 내부 역량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았다.

이에 국가사업에 대한 이해와 국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지난달 27일과 이달 20일 2차례 개최해 2024년 국·도비 지원 사업 3606억 원을 건의하고 347억 원의 공모사업을 추가 발굴했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